

고흥군 2만쪽 분량 설화 집대성 '화제'

2년간 2000여명 인터뷰... '현대판 어우야담' 13권 발간 유몽인 학술대회 등 설화문학 인물 재조명 작업도 박차

"우리 동네는 다 선소(船所)여. 그 강(발포항)이 그전에는 겁나게 깊었어. 나 알기로도 큰 작대기 너댓발되는 대막대기를 가지고 쇠스랑을 해서 굴을 건져서 해먹고 그랬어. 부자집들은 들에서 술을 받아 가지고 여그 썰어 놔다가 싼고 그랬는데. 500석이나 싼는 곱배가 들어와서 싼고 그랬어." (고광정·91세·도화면 덕흥마을)

"배타고 고기 잡으러 나갈때" 그때 (1960년대)는 그냥 바구니도 있고 조그만 한 도시락 같은 그런데다 싸갖고 맵고고. 그때는 풍부하지 못한 시냇가... 그때 수입은 하루 쌀 한 가마니(87kg)에 2000원 막이었을 거야." (장형수·75세·도화면 봉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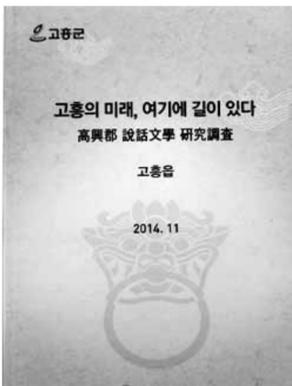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설화문학은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이다. 그러나 설화의 전승기반인 공동체의 해체

와 기록문화의 발전 등으로 인해 접할 기회가 줄어들며 차츰 소멸돼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고흥군이 최근 지역의 설화문학 연구조사서를 펴내 화제다.

▷2년동안 주민 2100명 인터뷰 발품= 고흥군과 전남도립대 (최한선 교수) 조사팀이 2년여에 걸쳐 16개 읍·면 515개 마을에 사는 주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구전돼 내려오는 설화문학을 수집해 2만여쪽 분량의 조사서(13권·사진) '고흥의 미래 여기에 길이 있다'를 발간했다.

설화집에는 오래전부터 구전돼 온 전설과 민담, 마을 유래 등 구비문학적 내용은 물론 일제 만행과 징용,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와 정치, 문화, 생활사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주민들은 자신이 겪어온 삶을 돌아보며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옛 보물창고 속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군은



이번 연구조사서가 시나리오 작가와 소설가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작품 소재들을 담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몽인 선생의 '어우야담' 잇는 설화문학 성과=군이 설화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조선시대 인물 만화경이라 불리는

설화집 '어우야담'(於于野譚)의 작가 유몽인(1559~1623)이 고흥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군은 유몽인 설화문학 학술대회와 정길 장군 학술대회, 유몽인 어우야담 설화극장 20부작 제작·방송 등 설화문학의 성지로 우뚝 서기 위한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류몽인 어우야담 활용 문화콘텐츠(에니메이션·웹툰) 개발 ▲임진왜란에 참여한 고흥 출신 의병, 군관, 승병 등 고흥에서 재직할 중용 공신들의 인물 재조명 사업 ▲고흥출신 대표 문인(박찬영·정운회·송석규) 문집 번역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의 설화를 집대성한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두원 운대리에 세워지는 '고흥 담방 분청문화관'내에 한국설화문화관을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남지역 다른 시·군의 설화문학을 재검토해 전국의 설화문학을 설화문화관에서 전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지난 27일 보성군 미력면사무소에서 열린 '군민과의 대화'.

즉문즉답...속 시원한 민원해결

보성군 '군민과의 대화' 형식탈피 큰 호응

보성군이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소통행정에 나섰다.

이용부 군수는 지난 26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이 군수는 각 읍·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한 외국인 청년들과 울포해변에서 새해 해맞이를 하면서 '글로벌 보성'을 설계하고, 차(茶)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차소비국가인 러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카차흐스탄과의 교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민선 6기

출범후 각 읍·면 초도방문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각 실과소장들이 직접 보고하고, 이 군수가 편안하고 소탈한 분위기 속에서 2015년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 즉문즉답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군수는 각 읍·면 방문시 주민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후 "주민들의 정성을 마음깊이 간직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면서 그 꽃다발을 읍·면장에게 "주민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다시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행복한 목공예 '나무야 놀자'

고흥군 마복산 자락에 목재문화체험장 문 열어



고흥군 포두면 마복산(높이 539m) 자락에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고흥군은 지난 29일 포두면 용강리에서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11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후 부지 2.9ha에 3년간 55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전국에 7개뿐인 시설로, 전남에서는 장흥에 이어 두 번째로 고흥에 들어섰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나무로 만든 공예품을 감상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종합 체험실'과 한옥생활이 가능한 '전통한옥 체험관' 등 2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는 생태연못과 난대식물 정원, 숲속의 교실, 황토맨발 걷기길 등으로 꾸며진 자생식물원도 조성돼 있어 어린이와 중·고생의 생태학습과 정·장년층의 힐링공간으로의 역할도 독특

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다양한 목재가공 체험 ▲목재가공 기능자 육성 ▲중·고 동흥시 흥목기술자 초·중·고 특설전 등 연간 3개 이상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과 팔영산 자연휴양림, 거금생태숲, 향후 조성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과 연계하면 산림휴양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고흥군 관광아이디어 공모 기념품·여행상품 등 4개 분야

고흥군이 2일부터 5월 18일까지 '관광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군은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정책에 반영해 전국의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모전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아이디어 ▲관광기념품 ▲여행상품 ▲여행후기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다. 제안응모는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공고·고시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이나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 접수는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제안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관광기념품 분야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가 지역성과 상품성, 경제성, 창의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장안등급을 결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은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3등급으로 분류해 최고 3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고흥군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061-830-5347) /고흥=주각종기자 gju@



곡성군, 은병원과 산부인과 진료 업무협약

지역내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없는 곡성군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곡성군과 은병원(대표원장 은대숙)은 지난 2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진료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산부와 여성질환자 등 군민이 병원을 이용할 때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분만 관리,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은병원을 관내 산부인과 병원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에 없는 진료과목인 산부인과와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전문병원, 보훈병원, 양·한방 협진전문병원 등 7개 기관과 진료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주민 보건복지와 의료유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해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인들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병원이용에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이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0)적장 주거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주월동 한양아파트

1층 / 28평 / 방3개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

- ◆ 매매 1억2500만원
- ◆ 임대 3000만원/45만원(5000만원/30만원)

상가 임대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1층 / 31평
800세대 / 시청입구
우측 GS편의점 입점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권리금 없음(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적합)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땅 매매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 900평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투자가치 좋음

- ◆ 용자 2억4000만원
- ◆ 매가 3억6000만원

010-8676-1900